

기획연재

유사언론행위
이대로는
안 된다

» 글 김병희 |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前한국PR학회장 kimthomas@hanmail.net

수준 높은 KBS 탐사보도를 기대하며

공영방송은 보도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소재의 선정성 피해야

지난 3월 10일 방영된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의 「재벌과 세습」은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영방송이라면 보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재의 선정성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나 「재벌과 세습」편은 설령 '알릴 권리'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취재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춰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기업 집단의 평판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반기업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 평판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조사의 신뢰 타당성 따져봐야

먼저, 재벌 3세의 경영능력 평가 점수를 기업 집단의 평판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평가 부문은 승계정당성, 장악력, 전문성, 노사관, 회사 발전 전망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에 능력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업 집단의 평판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에서는 지배력을 갖는 재벌 3세가 그룹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허나 현대적 기업 경영은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시스템에 따라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업 집

KBS 시사기획 '창'



단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는 보도하지 않고 재벌 3세의 경영능력 평가점수만 보도한 것은 상당히 편향된 보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물들도 대기업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다.

둘째, 과학적인 가정과 전제를 중시하는 통계학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조사 결과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100%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교수 18명,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20명, 공공 민간연구소 12명 등 모두 50명의 전문가 평가단을 대상으로, 총수가 있고 임원이 된지 4-5년 이상인 재벌 3세 경영 후계자에 대한 능력을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 조사에서는 표본을 확률추출법으로 선정하지 않았

다. 따라서 조사된 데이터의 상대표준오차(RSE)나 표본오차(SE)를 알 수 없어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실무적 맥락에서 경제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할당표본(Quota Sampling)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지 않고 단순 비율과 빈도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측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관적 취사선택 오류 조심해야

셋째, 현재 2세가 생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 3세의 경영능력을 평가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치라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현재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3세들에 대해 승계정당성, 장악력, 전문성, 노사관, 회사발전 전망이라는 5가지 영역을 모두 평가한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평가 대상자의 평균 점수에 있어, 승계정당성은 28점, 장악력은 47점, 전문성은 38점, 노사관은 36점, 회사발전 전망은 39점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향후 발전 전망은 앞으로 39%에 불과하다는 암울한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의 향후 발전 전망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50명에게 질문하고 비율 척도로 응답하게 해도 그 결과가 39%로 똑 같이 나올까? 수차례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측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서는 곤란하다.

넷째, 보도 과정에서는 50명의 평가단이 기술한 내용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주로 부각시켰다. 주요 평가 단어를 살펴보면 편법승계, 황태자, 검증미흡, 아버지 그늘, 사세확장 등이 핵심어로 방송되었는데, 이는 시청자들에게 반기업정서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맥락이다.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50명이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낚센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응답자들이 기술한 이러한 질적 평가 내용은 핵심어의 의미와 밀도 관계를 알아보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인용하면 곤란하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의미의 연결 관계, 밀도, 연결정도의 중앙성(degree centrality)을 파악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취사선택하는 의도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검증미흡’이나 ‘판단유보’가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쉽게 부정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KBS의 탐사보도 ‘시사기획 창’의 「재벌과 세습」은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영방송이라면 보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재의 선정성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탐사보도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 프로그램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결여한다면 결국 특정 기업 때리기로 비취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K A A**

